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295

JCCT 2019-11-36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현상 연구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Christian Elders Living Alone

배광수

Bae Gwang Soo

요약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65세 이상 남녀 독거노인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대화할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쇠약해진 신체 현상에 무력해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의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독거노인의 삶에 있어 신앙이 홀로됨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는 교회 안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해와 돌봄의 목회적 상담 기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현상학, 독거노인, 크리스천, 심리

Abstract In this study, I wanted to explore in depth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phenomena experienced by Christian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five male and female living alone aged 65 or older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the data after the interview was qualitatively analyzed by Giorgi's method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The study found five categories : ‘feeling closer to death’, ‘loneliness due to lack of a partner to talk to’, ‘helplessness to a debilitated body phenomenon’, ‘disconnected relationships’ and ‘looking at God’. The findings that the faith pro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of overcoming loneliness in the lives of the elderly, provide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and the pastoral counseling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hurches.

Key words : Phenomenology, Living Alone, Christian, Psychology

1.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다. OECD 발표에 의하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

상 14% 미만, 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6년이 되면 OECD의 예상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정희원, 광신대학교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19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7일

Received: September 30, 2019 / Revised: October 22, 2019
Accepted: November 07, 2019

*Corresponding Author: baecar@hanmail.net

Dept. of Doctor of Psychology, Gwangshin Univ, Korea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인구수에서 20%를 넘어갈 것이다. 나아가 205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로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수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관심의 사각지대에 노인 독거노인 수를 약 13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에 의하면 65세 빈곤율(65세 노인 가구의 소득이 총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비율)은 61.8%로 전체 빈곤율인 19.5%의 3배에 달한다. 특히 노년층 1인 가구 중 약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1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지나 지금은 고령 사회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빈곤, 건강 등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고독,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혼자 노년기를 보내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회적 상담기반을 마련하고, 교회 안에서 독거노인들의 돌봄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II. 독거노인의 특성

독거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뜻한다. 행정 절차에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이 없고 실제로도 홀로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족이나 자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부양하며 생활하는 단독 가구의 노인을 뜻한다. 독거노인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동거인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며 거주지가 노인시설과 같은 장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사는 1인 가구의 노인으로서 지칭하였다.[1] 독거노인을 배우자 또는 친족, 비친족 등 누구와도 동거 하지 않고,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했고,[2] 절대빈곤상태에서 생기는 소외감, 가난함, 질병의 문제에서 돌봐줄 인원이 없는 계층을 독거노인이라고 정의하였다.[3]

1.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

독거노인이 홀로 사는 경우는 가족과 관련된 사항 혹은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별 혹은 이혼과 미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거노인의 주거상태는 대부분 전,월세 무료거주이다.

저소득의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배우자와의 동거가 아닌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대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을 뜻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최소한의 보장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지만 빈곤과 사회에서의 소외됨,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275만 명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야하며 이것은 곧 혼자서 삶을 살아갈 저소득 독거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로부터 소외 받고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 및 유대감조차 마땅할 수 없는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

2. 독거노인의 육체적 특성

독거노인의 육체적 특성은 일반적 노인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주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체의 노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독거노인 역시 노화로 인한 근력저하 및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의 발병을 겪으며 또한 시력과 청력 등의 감퇴와 퇴행성 장애 등의 여러 방면의 신체적 약화가 일어난다.

노년기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는 개인의 노화현

상과 생활수준의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개인차가 생긴다. 그러나 가족의 보살핌과 경제력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심신의 저항력이 약화되어서 일반 노인과 다르게 더욱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의 독거노인들 중 대부분은 신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영양 불량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저소득의 독거노인들은 먹을 음식조차 마련하기 힘든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양섭취와 깨끗하지 못한 위생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은 질병의 발병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만성적인 질병으로 변하게 된다. 이들은 평균 3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통원치료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65% 이상의 독거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신체적 능력의 감소는 스스로 버텨야 하는 소외감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독거노인은 동거 노인 부부에 비해 영양 상태가 미흡하여 건강 수준이 낮으며 잦은 우울증과 외로움의 증상도 동거 노인 부부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독거노인은 동거가족의 부재와 어려운 경제 상태로 인해 신체·심리적 건강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3. 독거노인의 심리적 특성

독거노인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혼자 의식주를 감당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립과 소외를 느낀다.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41.0%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고 16.9%는 가까운 친구가 1명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단체 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독거노인은 25.8%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독거노인들의 대인관계가 저조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거노인의 소외와 고립감은 가족관계의 단절과 함께 핵가족화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며 현대에 와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립감은 그들을 우울감으로 내몰고, 쉽게 우울증이 유발되는 이유가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정 표현이 직접

적이지 않고,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심리, 신체적으로 부적응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독거노인들에게 자아존중감은 정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 또는 경험으로 인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들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결국 우울함과 소외감에 노출되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노화로 인해 경험하는 변화들은 독거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상실된 노인들은 우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힘의 약화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절능력을 약화시킨다. 상실된 자아존중감은 타인으로부터의 사랑, 돌봄, 신뢰 등이 보장될 때 향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며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비율로 10만 명당 54.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인 자살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주목할 점은 자살로 인한 노인의 사망률 중 60%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이다. 노인의 자살행위는 가족, 친지 등의 인간관계에서 소원한 관계가 되어 도움을 청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다. 노인은 도움 받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살아갈 희망을 버린 채 충동적인 자살을 하게 된다. 즉 독거노인의 경우 일반적인 노인과 다르게 혼자라는 외로움과 소외감의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독거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일반 노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된다. 노인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데,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아지며 앞으로의 얼마 남지 않은 한정된 미래를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근심이 낮아진다. 또한 가까운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의 서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 맥락에서 살아 있는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본 연구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얻는다. 독거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황, 개인적 경험의 총체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상황적 진술을 토대로 한 심층연구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해한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Giorgi의 심리학적 현상학으로 보다 엄격한 과학적 접근을 한다.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을 주의 깊은 기술(description)과 대화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말한다.[4]

본 연구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나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삶의 경험과 의미와 본질을 밝혀내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심리의 본질을 학문적 용어로 바꾸어 도출된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여 크리스천 독거노인의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사회를 이해하고 교회 안의 독거노인들을 공감하는 돌봄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의 진행을 위한 중심문제는 “크리스천독거노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은 무엇인가?”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경험의 본질은 어떠한가?’,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어떠한가?’ 의 2개의 하위문제를 설정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선정과 특성 및 윤리적 고려

현상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의 의식적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들이어야 한다.[5]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경험을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Giorgi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Giorgi의 분석방법에서는 참여자의 수를 2명에서 10명으로 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를 5명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 of participant

partic ipant	age	marri age relati onshi p	age of living alone	living situat ion	childr en	gende r
1	87	berea vement	4	hospi ce	4sons 1daug hter	man
2	68	divor ce	18	own house	1son 1daug hter	man
3	85	berea vement	7	mont hly rent	3sons 1daug hter	woma n
4	79	berea vement	9	own house	1son 6daug hter	woma n
5	76	berea vement	4	own house	2sons 1daug hter	woma n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진술을 토대로 참여자의 일상생활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보통의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섬세하고 윤리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이해시켜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자의 연락처, 소속 학교를 밝히면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으며 비밀 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혹은 혜택 등을 설명한 후에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로서, 모두 기독교인들이고, 현재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로 선정하였다.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연구 참여자로부터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별로 1회에서 3회 정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의 이야기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섬세한 배려가 필요했다. 참여자들은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의 문제, 방법, 문에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과 연구 참여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와 면담 내용은 녹음 처리와 필사될 것과 연구자의 연락처와 소속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본 교회 소속의 독거노인들로서 본 연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약속시간을 정하여 연구자의 소속 교회 상담실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였다.

분석과정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필사 내용과 녹취 내용을 연구자가 확인해보고 원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연구 대상자와 직접 만나서 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현장 노트를 참고하면서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기술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연구 대상자의 경험 본질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전체에서 찾아 텍스트 분리 작업을 한다. 셋째, 분리된 텍스트를 연구 대상자의 느낌이나 반응에 맞추어 주제를 구분하고 체험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바꾼다. 넷째, 주제와 의미가 통하는 표현들은 연구자의 경험과 기타 자료 그리고 현상학적 문헌에서 추출하여 면담자료에서 나타난 주제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연구 대상자의 체험 본질과 의미에 관한 주제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현상을 표현할 때 반영한다.

Giorgi의 분석방법의 특징은 개별적인 상황적 구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IV.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표출되는 의미단위 125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단위를 토대로 경험 구조를 통합하여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겪은 심리 경험의 요소들을 나열해보고 재배치하고 묶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5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구성요소로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 경험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도출하였다.

1.구성요소 진술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경험은 5개의 핵심구성요소인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대화를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쇠약해진 신체현상에 무력해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을 구체적 경험으로 도출하였다. 구성요소의 도출 과정은 아래의 <표 2>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표 2> 구성요소의 도출 과정
 <table 2> Generating process of Element

Core Components	Subcomponent
the feeling that death is getting closer	no regrets about death.
	the realization of their near death as growing older.
loneliness because there is no one to talk to	The pain of not having a friend they have known
	the difficulty of having no one to talk to
helplessness to a debilitated body phenomenon	Pain of various diseases
	the difficulty of walking due to aging of the body or disease
disconnected relationships	weakness in body function
	Not contacting families because they are afraid it'll be a problem.
looking at God	Finding God when in pain,
	Pray when lonely
	Reading the Bible and singing hymns for comfort

1)주제묶음 1: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독거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죽음이 점점 다

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잘 살지 못함에 대하여 후회를 하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죽음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 것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 삶에 대한 간절함도 드러냈다. 참여자 1은 지나온 삶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참여자 2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죽는다고 해도 상관 없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죽음을 인생의 순리로 수긍하면서 가까이 와 있는 죽음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고 했다.

오늘이라도 자다 죽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두렵지 않아요. (참여자4)

내 형제간이 1남 3녀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남편 병수발 30년 한 세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은 없다. (참여자3)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남은 시간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더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요. (참여자5)

2) 주제묶음 2: 대화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삶의 의욕이 상실될 만큼 참여자들은 대화의 상대가 없는 외로움을 고스朗스러워하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하루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해하였다. 참여자들 대다수는 혼자 지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대화상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참여자 2는 주변에 말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다. 참여자 3은 어디를 가나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한탄해 하며 한숨을 쉬었다. 참여자 4는 대화 상대가 없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또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와 말 한마디라도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살면서 그 누구와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 믿고 말할 사람도 대화 상대도 없고 혼자 생각하는 게 참 서글프죠.(참여자2)

하루 종일 멍하니 방에서 누워있죠. 답답하면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살 것 같죠.(참여자3)

말동무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버리니까... 적적함이 더 오는 거지.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말도 잘 안 들어 주고 무시하는 것이 힘들지. (참여자1)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지... 그래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잠시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참여자4)

3) 주제묶음 3: 쇠약해진 신체현상이 무력해짐

참여자들 대다수가 신체적으로 기력이 약해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3-4번은 쉬었다고 가는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하여도 쉽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약을 타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 걷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걷는 것마저 힘들 정도로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하였다. 참여자 1은 힘이 없어 걷다가 길에 주저앉을 때는 절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교회 계단을 올라갈 때 자신으로 인해 뒤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은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였는데 최근에는 귀까지 잘 들리지 않아서 어디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예전에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지... 나이가 들고 몸이 성하지 못해서 매일 약봉지를 달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슬퍼지지...(참여자 4)

난 그래도 나아...앞집에 혼자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나
이가 한참 어린데 풍을 맞아 혼자사는 못 걸어. 그래도 난
혼자 걸을 수 있으니 나는 그래도 나은 거지... (참여자 5)

주일이면 운동 삼아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한테 데리러 와 달라고 해. 미
안하기도 하고 해서 가끔은 걸어서 교회에 오기는 하는
데 예전 같지가 않아. (참여자1)

4) 주제묶음 4: 단절된 관계

참여자들인 독거노인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족과
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될까
봐 연락을 스스로 안 하게 되었고 어느새 혼자 지내는
상황에 놓였다. 참여자 1은 가끔 자녀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
들에게 행여 신경을 쓰게 할까봐 가족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은 참여자 본인이 연락을 하
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가끔 전화라도 할까봐 하
루에 몇 번씩 전화기를 살펴본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몇 달은 자주 전화도 하고 가끔 찾
아오더니 지금은 바빠서 그런지 전화 온지 석 달이 지
나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에 딸이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는데 목소리
라도 듣고 싶고 안부라도 묻고 싶은데 통 전화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젊었더라면 얼마라도
보태 줄 것인데...(참여자 2)

큰 아들 이번에 읍내에 식당을 열었다는데 가보고 싶
어도 갈 수가 없어요. 잘 되어야 할텐데...하는 일마다 잘
안돼서 늘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할텐
데...(참여자 4)

남편이랑 살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하더니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더 전화도 안와. 일
년에 명절 때 한번씩, 김장할 때 오고는 잘 안와. 그때는
서운하지. (참여자 3)

5) 주제묶음 5: 하나님을 바라봄

참여자들은 혼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하였다. 참여자 4는 혼자 있을 때는 찬송가를
크게 부르거나 자녀들이 사다준 작은 찬송가 기기를 켜
놓고 따라 부른다고 하였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시력
이 좋지 않아 보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참여자 1은 지
난 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잘 해주지 못해서 자
녀들이 생각 날 때면 자녀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해달
라고 기도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마음의 평안과 안
정을 찾고자 믿음 갖게 되었고, 기독교 TV 방송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우리 하나님 아
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 주시
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천
국에서는 외롭지 않겠지...(참여자2)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
라...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겠지. 다 자기 앞가림 하
겠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
지한테 가는 것이 이제 내 남은 소원이여.. (참여자 4)

나는 감사한 것은 내 나이가 87살인데 눈은 더 좋아
지는 것 같아. 허허허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어...그
리고 기도해.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편안하게 아버지
한테 데리고 가 달라고...(참여자1)

이상과 같이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독거의 삶에서
인생 노년의 허무와 서글픔, 후회, 원망, 단절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위안을 받
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의
지와 감사, 위안을 받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이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
고 있고 있었다.

2. 상황적 구조 진술

상황적 의미구조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중심의미와 주제를 규명하여 관
찰자의 입장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환경적이고 특수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개인으로서의 독특한 경험이 드러나게 된다. 본장에서는 크리스천 독거노인이 심리적 현상을 연구자가 참여관찰자의 관점에서 죽음에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대화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쇠약해진 신체현상에 대한 무력해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 이라고 하는 5개의 핵심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1) 참여자 1

참여자 1은 젊었을 때 아내를 너무 고생을 시킨 것이 미안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게 잘 해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아, 나에게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은 천국에서 아내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가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소천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1은 특별한 대화 상대자가 없어 성경을 읽거나 주로 TV를 시청을 하루를 본고 있었다. 그리고 쇠약해진 육체로 인해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방안에서 걷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다. 자녀들과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력은 좋아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했다.

2) 참여자 2

참여자 2는 1남 1녀를 두었다. 그리고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다. 자녀들은 모두 아내를 따라갔다. 가끔 자녀들과는 연락은 하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살았다. 신체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거래하는 사장님들과 업무상으로 대화는 하지만 마음을 내어 놓고 말할 수 있는 대화상대자는 없었다. 참여자 2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되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인지 자주 교회에 들러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갔다.

3) 참여자 3

참여자 3은 신실한 신앙인이다. 교회에서 직분은 권사이다. 확실한 구원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도 기쁘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특히 무릎이 안 좋지 않아서 걷는 것을 힘들어 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집에 있을 때는 기독교 방송의 TV를 시청하거나 찬송을 부른다고 했다. 대체로 자녀들과의 소통은 좋았다. 자녀들이 읍내에 나오면 꼭 어머니 집에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간다고 했다. 2년 전에 막내아들이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막내아들의 직업은 교사였다. “자녀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버렸다.” 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막내아들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함께 죽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4) 참여자 4

참여자 4는 1남 6녀를 두었다. 17살에 시집을 와서 53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남편 병간호를 무려 30년을 했다. 좋은 세월들을 다 보냈다고 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지 9년이 되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2년 전까지 만해도 남의 집의 농사일에 도와주었고 그 값으로 생활을 했다. 그런데 2년 전에 큰 수술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일을 원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30만원과 노령연금 20여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과금을 떼고 나면 45만 원정도 손에 쥐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자녀들을 돕는다고 했다. 작년에는 손자 대학 등록금도 보탬이라고 했다. 7남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사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 늘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고 있다.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주고 사람들이 다 착해서 좋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면 행복하다고 했다.

5) 참여자 5

참여자 5는 예수님을 믿은 지 4년 정도 되었다. 면접 내내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을 했다. “목사님, 저는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마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같은 연령의 다른 분들이 기도도 잘 하고, 찬송도 잘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고 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대체로 대화할 수 있는 주변 분들은 많았다. 종종 마을 회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여자 1은 자녀들과의 소통이 별로 없었다. 가까운 거리에 아들이 살고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어 인지 자주 오지 못한다고 서운해 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몸은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집 뒤에 있는 텃밭에서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힘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일반적 구조 진술.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경험의 본질을 일반적인 구조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전반에 걸쳐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경험한 심리적 현상의 본질을 바탕으로 5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참여자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포함하는 상황적 구조진술을 종합하고 재차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였다. 일반적 구조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크리스천독거노인들은 홀로 사는 고립감,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대화 상대자의 없음, 가족과 사회의 단절, 신체적 약해짐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었으며 죽음 이후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우울감이나 괴로움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당연한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도 대체적으로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 또한 신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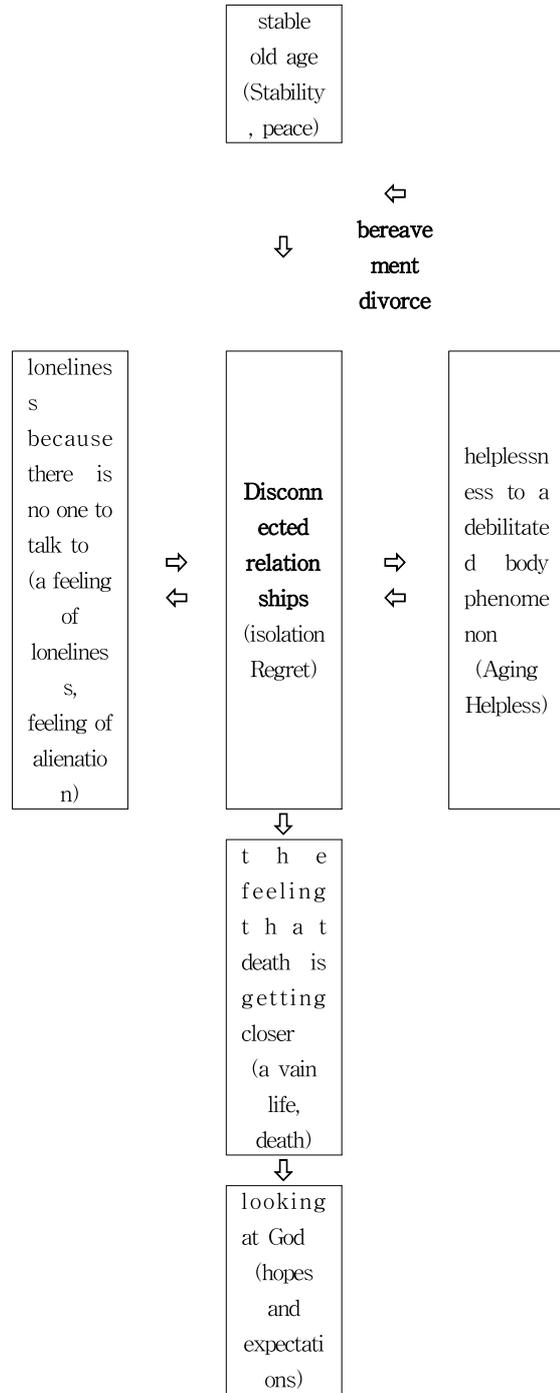


그림 1. 크리스천 독거노인의 심리적 현상 구조
 figure 1. psychological phenomenon structure
 of Christian living alone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천 독거노인의 심리경험은 어떠한가에 있다. 연구결과 125개의 핵심,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크리스천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중심 현상은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대화할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쇠약해진 신체현상에 무력해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 이었다.

1) 홀로 사는 독거인의 삶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원인으로 현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동시에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식 없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17개 모든 시,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자들인 독거노인들이 홀로 살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모실 수 없는 가정의 상황이거나, 스스로 자원하여서 요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참여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 혼자 남겨진 자신을 자녀들이 함께 지낼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자 (지금은 시설에 있음) 낙심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독거의 삶을 살면서 사별한 아내이든 이혼한 아내이든 여전히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크리스천 독거노인들 대다수는 배우자와 사별하여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1은 결혼하여 20년을 함께 살다가 성격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다. 그는 독특하게 혼자 사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여서 연구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2는 배우자인 남편이 오랜 시간을 병으로 누워있어 돌보았는데 끝내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되어 독거인의 삶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사망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3은 남편이 거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나중에는 큰 병을 얻어 결국 사망하게 되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자녀들에게도 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근근이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홀로 지내게 된 이유는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크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삶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라의 보조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삶의 힘겨워보였다.

2)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독거의 삶에 대하여 처음에는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대체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는 삶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을 갖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자들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잊혀 가는 것을 서글퍼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죽음, 존재 상실에 대한 불안이 독거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인생이 끝나간다는 의미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6]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역할(일)을 할 수 없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삶의 무망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주변으로부터 지워져 가는 것에 대해 서글픔을 느끼고 인생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허탈해하였다. 그 이유는 병들고 쇠약해져 가는 몸으로 인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현재 자신이 홀로 살고 계시면서 지나온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가 삶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없이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였다. 참여자들은 지난 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자책감과 반성으로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궁핍함에서 겪는 어려움과 서러

움도 토로하였다. 몸이 아파도 가족들에게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짐이 될 것 같은 생각과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지할 데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심정을 힘들어 하였다. 심문숙의 연구와 본 연구 참가자들의 현상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발견하였다.[7] 본 연구 참여자들도 의지할 곳 없는 삶이 절망이고 슬픔이라 표현하면서 힘든 심정을 표현하였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정신적인 변화는 고독감, 소외감, 우울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8]

참여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노화 현상에 무력감을 겪고 있었다. 노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의 상실을 경험할 때 노인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9]

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족에게 해 준 것이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슬퍼하며 지금의 처지를 수긍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심정을 갖고 있었다.

3)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삶의 의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독거노인들은 인생의 발달 주기 상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였다. 심리적으로 외로움의 상태였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인 것을 안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 노년의 시기 고령의 독거노인 참여자들에게 복합적인 삶의 위기감이 있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삶에 의미를 갖게 하는 희망도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신앙의 힘과 죽음에 대하여 수긍하는 심리적 태도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나이를 이미 생명이 다한 삶의 끝이라는 심정과 동일시하였고 그래서 죽음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죽는다는 사실에 미련이 없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 주기의 한 단계로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라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독거의 삶에서 신앙이 주는 긍정적 자원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노년기의 절망감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혼자의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마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특히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신앙생활에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다. 신앙을 통해 배우는 삶은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고 때로는 해소연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형성하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모성적 돌봄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미흡하다 해도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결론

본 연구는 크리스천 독거노인이 겪는 심리적 현상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밝혀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하고 녹취도 하였다. 심층 면담은 보통 최소 60분에서 길게는 90분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의미 단위를 구성하여 하위 구성요소로 묶은 후 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도출된 구성요소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낌', '대화 상대자가 없어 외로움', '쇠약해진 신체 현상에 대한 무력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이었다.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의 심리와 경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노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신체기능 약화에 무력감을 호소하였다. 다양한 질병과 신체적 통증을 느꼈고, 걷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고, 기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신체 능력에 대한 무력감을 표출하였다. 자신의 한 몸 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노화현상에 대하여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잃게 영향을 끼쳤다.

둘째, 홀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소외와 외로움의 처량한 심정을 발견하였다. 세상과의 물리적 단절과 소통부재의 처량함을 호소하였다. 몸이 아파도 병원진료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였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대화상대의 부재로 극도의 적막감이 발견되었다.

셋째,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신앙에 의지하여 희망을 품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소외감, 외로움과 고립감, 후회감, 무력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신앙이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생활을 견디는 삶의 의미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체의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감이 죽음에 대하여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에게는 살아가는 의미였다.

3.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현상을 질적으로 연구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독거노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통 여성 독거노인, 혹은 일반 남성 독거노인이 주를 이루었다. 이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나마 한 두 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크리스천 독거노인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에 대한 질적 경험 연구를 시도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한 본 연구는 크리스천 독거노인들이 그동안 신앙인이었기에 말하지 못하였던 삶에서 겪게 되는 심정과 고통, 그리고 애환을 깊이 있게 드러낸 분석결과에 의의를 둔다. 교회 안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경험과 현상을 밝혀서 관련 기관의 상담 자료로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인간의 발달 주기의 종결인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위기인 죽음에 대한 심경을 드러낸 점이다. 고령의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와 의료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 안의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들의 고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들의 삶에서 그래도 신앙에 의지하여 삶에 의미를 두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 가치를 지닌다. 독거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상황에서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 사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심리적, 임상적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효과적인 심리 상담과 행정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J. Y. Ku,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Living in Group Home of Solitary old People. Pusan National Univ. Master's Dissertation, 2007.
- [2] K. M. Song,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Life of the Aged Living Alone with Low Income and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e University of Seoul. Master's Dissertation, 2004.
- [3] J. B. Lee, A W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Satisfaction of Services for the Aged Living Alone in Rural Districts. Taegu Univ. Master's
- [4] K. L. Shi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4
- [5]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Inc, 1997
- [6] E. S. Kim, Study of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Solitary Elderly and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Daejeon Univ. Master's Dissertation, 2004.
- [7] M. S. Shim, Health Experience of Low Income Elderly living alone :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n's Praxis Methodology. Chonnam National Univ. Doctoral Dissertation, 2004.
- [8] J. H. Lee, & Y. G. Kim, Counseling for the Elderly. Seoul: SigmaPress. 2006
- [9] K. E.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for Elderly's Powerlessness. Ewha Womans Univ. Doctoral Dissertation, 1994.
- [10] H. Y. Shin, Biblical Counseling for Hopelessness in the Elderly. Chongshin Univ. Master's Dissertation, 2010.